

# 시집읽기, 그 즐거운 동일화의 초대

## 비평가가 꼽아본 '이 계절의 시집'

반경환  
문학평론가

### 두렵고도 즐거운 이 계절의 시읽기

일찍이 제네바학파의 조르즈 풀레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다. “모든 예술에는 자기가 표현하는 대상과 同化된 자(예술가)와의 同一化에의 초대가 있기 마련이다. ... 읽는다는 것은 한 스승이 느낀 것을 저 자신 속에 재창조하기를 시도하는 일이다”라고. 따라서 한편의 시는 언제나 사회 역사적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한 시인의 개성과 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한 시인의 개성이 그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외면적인 개성이 한 사람의 독자에게 좋은 압력을 유발시킬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도덕성(개성)에 대한 면죄부를 허여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경직된 리얼리즘은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시, 혹은 문학에 있어서의 리얼리즘은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금과옥조와 불문물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리얼리즘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되고, 한편의 시가 사회적 현실을 언제나 반영한다는 명제가 폭넓게 공인되고 있는 것이다.

동일화의 초대가 그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 그것은 수용 주체자(독자)들을 능동적인 주체자(창조자)로 변모시킨다. 분석자는 한편의 시를 수동적으로 따라가지만, 해석자는 그 시를 능동적으로 변모시켜서, 그 자신의 세계관을 은밀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관계는 무수한 산울림과도 같고, 의미 있는 생산적인 대화와도 같다. 하나의 메아리가 수많은 울림을 낳듯이, 생산적인 대화 역시도 수많은 울림을 낳는다. 이러한 시의 울림이 그 진정성을 얻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풍요롭게 재구성된다. '이 계절의 시집'의 필자로서 나는 우선 이러한 생각들을 떠올려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두렵기도 하고, 또한 그만큼 즐거운 것이기도 했다. 두렵다는 점에서는 필자의 우둔한 능력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즐겁다는 점에서는 수많은 시인들의 시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들 수도 있겠다.

현대사회는 소비사회라는 말이 매우 폭넓게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주의사회가 생산과 소비를 두 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제는 생산의 신화가 완성되고, 어느덧 소비의 신화에 그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용어는 어차피 일면적인 것

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생산과 소비는 불가분의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의 소비 행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다. 퇴폐풍조가 만연하고, 모든 것이 쾌락체험 속에 수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한 것이다. 좀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한편의 시작품이나 우리 인간들마저도 일회용 소모품으로 소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한 것이다.

### 화해로운 세계의 부재에서 씩든 세 음화

아놀트 하우저는 그의 명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서, 대중문화가 우중문화로 떨어질 것을 염려한 적이 있었다. 키치(kitsch)문화 세대가 만화·영화·TV·전자오락·컴퓨터 등에 사로잡혀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중문화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우리 시인들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침윤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의 베스트셀러 시인들 역시도 따뜻한 온정주의로서 우리 모두의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값싼 교양체함에 침윤되어 있는 베스트셀러의 시인들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지만, 이 계절의 시인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 중에서도 필자의 관심을 끄는 시집들은 김남주의 「이 좋은 세상에」(한길사), 박철의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눈물로 가득 채울 하늘」(책중의책), 이중기의 「식민지 농민」(해성), 박종해의 「이 강산 녹음 방초」(민음사), 문인수의 「뿔」(민음사), 조창환의 「그때도 그랬을 거다」(문학과비평사), 원구식의 「먼지와의 싸움은 끝이 없다」(한국문연), 박제천의 「푸른 별의 열두가지 지옥에서」(청하), 신정숙의 「그렇게도 먼 지구」(청하) 등이다.

김남주의 「이 좋은 세상에」는 그의 세계관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좋은 세상에」는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사상의 거처」 등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그것의 되풀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빼앗긴 토지와 밭을 찾아  
빼앗긴 피와 땀의 노동을 찾아  
어깨동무하고 나서는 길이지요.  
무심한 하늘에 침도 좀 뻗어주고



궁정의 음탕이며 고관대작들의 부패와 타락에

비분강개도 좀 하고

—「역사의 길」에서

“빼앗긴 토지와...땀의 노동”을 찾아나선다는 것도 그렇고, “궁정의 음탕”과 “고관대작들의 부패와 타락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 그의 사유체계가 바로 그렇다. 하지만 그의 역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낡은 형식에 대한 집착으로 귀결되고, 낡은 형식이 새로운 삶의 장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남주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민족해방이나 노동자·농민들에 대한 그의 편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담아내는 방법에 있다고 보여진다. 낡은 형식은 구체적인 삶의 결을 얻지 못하고, 관념적인 구호의 차원으로 추락하기 십상인 것이다. 김남주와 같은 입장에 있는 이중기는 그 관념적인 편향을 어느정도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이중기는 오늘날의 농촌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영하 4도에서 동산한 꽃들이 훑날린다  
속수무책이다 결빙의 꽃들이 훑날리는 이  
환장할 봄날,

이건 또 무슨 놈의 확인사살인가  
느닷없이 우박이 쏟아져 내려  
어쩌다 한두 개씩 남은 농민의 뱃구레를  
탄흔처럼 찌익, 찌익, 긁어놓는다

—「마음의 감옥」에서

이중기의 「마음의 감옥」은 오늘날의 농촌의 실상과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 “영하 4도에서 동산한 꽃들이 훑날”릴 때, 실의에 잠긴 시적 화자의 마음도 마음이지만, 마치 “확인사살”처럼 또 쏟아지는 “우박” 때문에 “환장할 봄날”이라는 극적 표현이 그 진정성을 얻고 있는 것이다. 환장할 봄날이라는 표현이 오늘날의 농촌의 실상을 가리키고 있다면, “영하 4도”나 “우박”은 그것이 동토의 상징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따라서 오늘날의 농촌은 살만한 곳이 못되고, 어느덧 그곳의 주민들은 “식민지의 백성”(絶陽歌)들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시인은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농산물 완전 수입개방”이라는 말과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고, 식량 자급자족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기원」의 저자인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창작과 비평」, 1992, 봄호), 그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여겨진다. 이런 점에 있어서 박철의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눈물로 가득 채울 하늘」이라는 시집은 그만큼 이채로운 시집이라고 할 수가 있다. 때늦은 감이 있고, 또한 그만큼 시의성을 상실한 것도 같지만, 어쨌든 양공주들의 애환을 적나라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 어미 밤으로 내지르던 콧소리 컸은  
그 애잔한 뜻을 아직 모르지만 나는 곳곳이  
돌아서 청바지의 고장난 지퍼를 만지고  
당신은 등 뒤에서 담배연기를 뿜었지요  
경험이 꽤 되나봐 옥이  
에이, 개새끼들 또 칠수한다나 본대 씨팔  
—「꽃은 피고 지고」에서

「꽃은 피고 지고」에서 박철은 양공주 모녀의 일대기를 회화화시켜 놓고 있다. 하지만 그는 미군의 역사적 배경과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미군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양공주들에게 그 초점이 가닿아 있기 때문이다. 박철이 그 시집에서 노리고 있는 것은 하나의 서정시들이 서사적 총체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겠지만, 그 성과는 지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군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시인 자신의 사회적·역사적인 평가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남주·이중기·박철 시인 등의 시들은, 어쨌든, 민족해방의 관점에서, 그 해방의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체험은 공동체 체험에 맞닿아 있다. 공동체 체험이란, 말과 대상, 인간과 자연에 대한 단절이 없는 세계를 뜻한다. 따라서 그 체험은 화해로운 세계와 맞닿아 있다고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화해로운 세계가 없다는 점에서, 그들의 시들은 사회적인 음화로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 지적 체험 바탕한 다양한 상상력의 시들

다른 한편, 원구식·조창환·박종해·신정숙·박제천·문인수 등의 시인들은 그들의 '지적 체험'에 대한 어떤 천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적 체험은 한 문명의 탄생과 그 역사적 전모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교양체험에 가깝지만, 값싼 교양체험의 배부른 평화주의를 거절한다는 점에서 그것과도 다르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그것은 만인 평등과 인류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체험과도 맞닿아 있지만, 공동체 체험의 경직성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과도 다르다고 할 수가 있다. 요컨대 시에 있어서의 지적 체험은 현대 사회의 총체적 부정의 자리에서 생겨난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원구식과 조창환은 지식인들의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고장난 이데올로기-잃어버린 시간  
속에 집을 세우고 세상을 바라본다. 망가진  
내가 보인다. 그러나 나는 연약함 몸으로 우  
주를 해석했으며, 먼지와 기나 긴싸움을 벌  
여왔다.

—원구식, 「먼지와 싸움은 끝이 없다」에서

세상이 모두 「오림픽!」하니가  
「오림픽」 다음에 「내림픽이」 왔잖아.  
세상이 모두 「올림픽」 했으면  
「올림픽」 다음에 「널림픽」은 안왔을텐데  
—조창환, 「그때도 그랬을 거다」에서

원구식의 시세계가 그로테스크하다는 것은 그의 시세계가 지하생활자의 그것처럼 음습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창환의 시세계가 그로테스크하다는 것은, 그의 시세계가 싸늘한 회의주의자의 시선으로 교묘하게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구식의 「먼지와의 기나 긴 싸움」은 이 세계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부르고, 조창환의 말과 그 대상과의 싸움은 이 세계의 종말을 부른다. 그러나 원구식의 실존적 세계 인식은 그만큼 깊이가 없고, 그 반면에 조창환의 세계 인식은 그만큼 단순해 보인다. 따라서 원구식에게는 실존주의적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조창환에게는 그의 말놀림-편(pun) 지향이, 좀더 과감하게 그 자신까지도 해체하고 재구성해 보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박종해·신정숙·박제천의 시들은 '우주적 상상력'에 그 초점이 가닿아 있다고 생각된다. 우주적 상상력이란 시대·인종·환경을 뛰어넘어 그 화해로운 세계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박종해의 시에서는,

별이 빛날 때  
나는 우주를 숨인다.  
내가 이처럼 우주를 가까이 할 때  
나는 허무주의자가 아니다.

라는 「영원의 기도」가 돋보이고, 박제천 시에서는

눈이 오면 갑자기  
그 마을에는 새들이 나타난다

머리 가득 눈을 이고 선 나무마다  
새들이 붉은 열매 푸른 노래로 매달려  
마을을 온통 잔치판으로 바꾼다

라는, 「우표를 들여다보며」가 돋보인다.

따라서 박종해의 「영원의 기도」가 “온통 잔치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전혀 막힘이 없고 새로운 어법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우주적 상상력의 장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의 비역사성과 함께 체제순응적인 현실주의가 그 한계로 남는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신정숙은 그러한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녀는 우주적 상상력으로 이 땅의 현실을 더욱 투철하게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떠나와 나는 가장 먼 곳에서  
지구의 고독을 그러나 가까이 바라본다  
뒤돌아보지 않고 떠난 저 곳  
흰 구름에 싸인 초록의 지구  
(중략)

전쟁과 평화가 한 위도에서 나란히 숨쉬고  
아침과 밤이 멀찍이 떨어져  
연인처럼 가깝게 손을 내밀고  
사망과 탄생이 울음과 박수로 기억되는 곳  
—「그렇게도 먼 지구」에서

그러니까 신정숙의 우주적 상상력의 요체는 이 땅에 대한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다고도 할 수가 있다. 비록 “전쟁과 평화가 한 위도에서 나란히 숨쉬고”, “사망과 탄생이 울음과 박수로 기억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모순에 찬 이 땅의 현실을 우리 인간들이 살만한 삶과 터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의 소산인 것처럼 보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우주적 상상력은 초월과 영원의 세계에 맞닿아 있지 않고, 총체적인 부정정신에 맞닿아 있게 된다. 따라서 그녀의 미학적 거리는 체제 순응주의자들의 현실도피적인 거리도 아니고, 또한 그 반대로 이유없이 반항만을 일삼고 있는 냉소주의자들의 그 기만적인 거리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다. 요컨대 그녀의 시세계는 체제 전복적인 전위주의자의 시선에 의해서 새롭게 재구성되고 변형되고 있는 것이다.

문인수의 「뿔」이라는 시집은 매우 독특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의 시세

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슬픔은 물로 된 불인 것 같다.  
저 나무 송두리째  
저 나무 비바람 속에서 견잡을 수 없이  
타오른다.

나무는 폭발한다.

라는, 「슬픔은 물로 된 불인 것 같다」라는 시에서처럼, “초록의 상상력”이라고 보여진다. 그 초록의 상상력은 끈질긴 생명력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시인의 시선에 의해서 교묘하게 변형되어 있다. 한마디로 “슬픔은 물로 된 불인 것 같다”는 시인의 시선은 아름답기만 하고, 동시에 그 내면화된 슬픔이 민족문화 진영내의 그 어떤 슬픔보다도 더 큰 감동(울림)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믿고 싶다. 내면화된 슬픔이나 분노는 덧없이 투철한 지적 체험의 소산이다. 지적 체험은 뼈아픈 반성과 비판정신으로 무장된 체험이다.

나는 한 글에서 시인은 영원한 음모자라고 쓴 적이 있었다. 시인은 그 불순한 음모를 통해서, 현대 소비사회의 그 모든 것을 회화화시키고자 애를 쓰고 있다.

同一化에의 초대—우리는 시인들이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땅히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된다.